

야권 단일화 무산...여야 전략 수정

새누리, 국민의당 완주 응원...막판 연대에 경계심 더민주 "투표로 단일화 해달라" 死票 방지 호소 국민의당 "무능한 야당 대체할 유일한 정당" 강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야권 후보들 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호남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2야 구도'가 정립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또 여야 모두 선거전략을 수정하고 변화된 선거환경 대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더불어민주당은 '사표 방지'를, 국민의당은 '야당 교체'를 각각 전면에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단일화 무산에 내심 반색하면서도 '꺼진 불도 다시 붙는다'는 금언처럼 막판 연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보들이 완주할 경우 발생할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 국민의당을 향해 '완주'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선거 결과에 대한 낙관을 경계하기 위한 일종의 '엄살 부리기 전략'까지 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 상크레딧인 여의도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20대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이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소개한 것이다.

4일 권상돈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우리 당 후보의 실제 지지율은 15~20% 낮게 나왔다. 최악의 경우 전체 의석수는 135석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다"며 "특히 우리가 '박빙 우세'로 나온 곳은 (지체 조사에서) 전부 지는 것으로 나오더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사표(死票) 방지론'을 앞세워 선거구도를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배제한 여당과의 '1 대 1 구도'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장선 총선거대책장은 전날 기자회견장에서 "앞으로 당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여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로서 사실상의 단일화를 이뤄달라는 메시지만인 셈이다.

더민주는 또 '경제심판론'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단일화 논란에 선을 긋는 동시에 '경제 이슈'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은 '대안 야당론'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던지는 표는 더민주에 대한 심판의 뜻도 담겨있다"며 "당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표라고 해서 사표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희경 대변인은 "호남에서부터 야당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무능한 야당을 대체해 국민의 삶을 지킬 유일한 대안야당"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전투표 참여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오른쪽)과 20대 총선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이 4일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20대 총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 계획을 발표할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협뉴스

강운태 가족 “선거운동 허용을” 눈물 호소

옥중출마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가족이 후보의 선거운동 허용을 눈물로 호소했다. 강 전 시장의 부인 이덕희씨와 아들 지현씨는 4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기간 구속을 정치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에 제출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다시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원에서 가려졌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후

보가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후보와 가족의 가슴은 너무나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정치적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평가를 받고 싶다”면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간 형평성이 보장된 선거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광주 동남갑 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오는 10일 이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

千측근 김영남 시의원 탈당

전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남 광주시의회이 4일 탈당 선언과 함께, 천 대표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은 김영전 전 국회의의 광주시장 공동위원장의 결별 선언 이후 후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탈당 배경에서 ‘나쁜 정치세력’, ‘두번 다시 속아서 안된다’, ‘6선 하려고 안철수 대표에게 호남을 송두째 바쳤다’는 등 천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권은희 “교육도시 광산 건설 앞장”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은 4일 광주 최고의 경제·문화·교육도시 광산 건설을 위한 3대 비전의 최종 단계인 교육도시 광산 공약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30·40대 여성과 엄마들의 최대 고민은 육아·보육·교육”이라면서 “일가정 양립 여성들의 고민을 가장 잘 풀 수 있는 인물”이라고 자세대 인물론을 강조했다.

이형석 “일곡·운암도서관 현대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를 후보는 4일 “북구 일곡·운암도서관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철 광주선대위원장과 함께 편 유세에서 “지역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전구청장, 전·현 시구의원 “이용빈 지지”



전 광주시 광산구청장과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갑 후보인 이용빈 후보를 지지했다.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등 20명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이용빈 후보야말로 정의로운 정치와 광산구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광주 현역 의원 심판과 새로운 인물의 국회 진출을 위해 김동철 의원의 당선을 막고 이용빈 후보를 돕겠다”고 말했다.

정준호, 삼보일배 중 부상...병원 치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들어간 정준호 후보가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정 후보는 4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대 정문에서 광주역으로 향하던 중 무릎 등에 통풍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무릎 등의 활과상이 심해 삼보일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주변 만류에도 애초 계획한 금남로 5·18 민주광장까지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북구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민의당 최경환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지역민의 생활 문화·예술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생활문화센터’조성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00세 시대 도래와 주 5일제 시행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여가활동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인프라는 취약하다”면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지역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레나 “광주역 일대, 시민 공간으로”



민중연합당 장세레나 광주 북구 갑 후보는 4일 “간이역 수준으로 전략한 광주역을 하루 빨리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광주역 기능을 승격적으로 통합하고 광주역과 철길 주변을 문화 공간으로 시민의 품에 돌려 줄 것을 제안한다”며 ““북구의 푸른길”을 광주전·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생명과 건강의 길로 만들고 광주역 건물과 부지에 체육문화복합시설과 함께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김성환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책 발굴부터”



국민의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4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洞)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기존 주민복지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명칭 변경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복지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내실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명칭 변경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복지시책을 발굴, 실천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혜령, 출근길 큰절 인사 선거운동



무소속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5일 광주시 동구 계림오거리에서 출근길 운전자 등을 상대로 큰절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양 후보는 이날 출근길 주민들을 상대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뒤 악수를 청하는 등 재선거 승리를 위한 다짐을 다졌다.

양 후보는 “주민과 30여년을 이웃으로 살아오면서 큰절을 드린 적이 없어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5000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

여야, 과학·IT 공약 ‘알파고 마케팅’...경실련 “식상하다”

이세돌 프로와 알파고의 바둑대전 이후 20대 총선에 과학·IT 분야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알파원(알파고+기호 1번)’ 유세단을 꾸리는 등 ‘알파고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한반도 최초 달 발사체 성공 공약을 냈었다. 한국형 발사체와 달 궤도선, 착륙선을 자력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과학기술부 독립 설치를 공약했다.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부를 독립해 설치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게인 참여정부’다.

국민의당은 과학 분야 공약 역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도 그 중 하나다. 대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이 유출되고 사장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4개 정당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참신하거나 개혁적이지 못하고 기존 정책을 재탕해 나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서울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상가 & 제척부지 NPL매각
상가 분양가 및 NPL매각 채권최고액 330억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차임 1억5천만원 가능
- 대출금 이자를 뺀 월 수익 약 1억 가능

제척부지(보상가) NPL매각 채권최고액 270억

- 하월곡 제1구역 재건축시 보상가격 약 250억~270억가능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한화 컨소시엄)완료
- 상가, 제척부지의 NPL 매각 금액은 상담 시 공개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3천 ~ 9억8천만원)
- 대출받지 않고 전세 놓으면 1억 ~ 2억원으로 소유
- 현재 즉시입주 가능(선착순 동 호수 지정)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술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술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술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술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세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기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뀔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술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